학교폭력 증가… '대책마련 시급'

전북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초등학생 피해 심각 · 언어폭력 가장 많아

전북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 실시한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1일~30일까지 실시했다. 전라북도는 조사대상 학생 15만6천여 명 중, 71%인 11만 천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169명(2.0%)으로 전년 동차대비 크게 증가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학생은 초등학생 1,572명, 중학생 415명, 고등학생 176명이며, 전년 동차대비 초등학생은 크게 증가, 중고등학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민감성이 높아졌다.

또한, 초등학생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주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한 초등용 문항을 분리 적용하였던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년 동차대비 학생들이 중복 응답한 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는 크게 감소(4,195건→3,411건, 784건↓)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7%), 집단따돌림(23.7%), 신체폭행(9.0%) 순이었으며 집단따돌림은 증가, 스토킹, 사이버 폭력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35.3%)과 점심시간(20.0%)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하교이후시간(12.2%), 정규수업시간(8.0%)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로는 교내에서는 교실 안(32.2%), 복도(15.7%), 급식실 및 매점(9.9%) 등의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교외에서는 학교 밖 체험활동 장소(5.4%), 사이버 공간 (4.7%)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이유는 나를 괴롭혀서(28.5%), 장난으로 이유없이(18.0%), 맘에 안 들어서(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에서는 나를 괴롭혀서 가해를 한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맘에 안 들어서(21.1%), 나를 괴롭혀서(18.9%) 등의 이유로 가해를 한다고 응답했다.

가해방법은 전체적으로 개인에 의한 가해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으로 행해지는 가해행위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913명으로, 전년 동차 대비 309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727명, 중학생 128명, 고등학생 54명이며, 전년 동차대비 266명이 늘어난 초등학교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중학교는 14명, 고등학교도 25명 증가했다.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645명으로, 전년 동차대비 증가(355명)했고 목격응답률 또한 4.3%에서 5.1%로 0.8%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8.7%로 전년 동차 대비 0.5%p 감소했으며, 대상은 가족(35.9%), 학교(28.9%), 친구나 선배(1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도 21.3% 응답했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65.2%로 전년 동차대비 0.7%p 감소했으며, '같이 괴롭히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4.8%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급별 심의 건수는 지난 2년간 중학교(593건), 고등학교(411건), 초등학교(195건) 순이었으며 2017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9.3%, 9.7% 증가했고 초등학교는 21.6% 감소했다.

한편, 2학기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는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기존 양적자료 중심의 조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동원 총장이 27일 전주 근영여고를 찾아 특강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수인재 유치 위해 발로 뛴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 근영여고 찾아 특강 · 교사 간담회 '큰 호응'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잇달아 일선 고교를 찾아 특강 및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총장과의 따뜻한 동행'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6일 전주고등학교를 찾아 특강과 간담회를 연 김 총장은 27일에는 전주 근영여고를 찾아 특강과 입시 관련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총장은 고교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김동원 총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와 대학'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전북대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의 내실화 등을 위한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역거점 플랫폼 대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전북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공학교육 혁신거점센터, 창의기술 인제센터, 이공학 영재교육원, 선진대학 및 연구소 비전 트립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일선 고교 특강에 이어 저녁에는 학생부위주전형 자문교사협의회 위원 위촉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전북대 학생부위주전형 자문교사협의회는 전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역 우수인재 발굴·추천 등을 목적으로 지역 고교 교사 및 입학관계자 등 55명으로 구성돼 1년 여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전북대 홍철운 입학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전북대는 창조적 선진사회로 만들어 갈 큰사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재 그리고 새로운 역사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인재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며 "우리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잘 가르치는 거점국립대인 우리 전북대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추천과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우수학생 유치부터 교양교육과 전공 교육의 내실화, 대학원 과정으로 이어지는 우수인재 양성 시스템인 Honor Student 양성 시스템(H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오늘 잠실실내체육관서 전국체전 대진 추첨 진행

27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시·도대표자회의가 2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전국체전 관련 주요사항 등을 논의된다. 특히, 각 종목 성적의 성패를 가르는 대진추첨도 진행된다.

대진추첨은 전국체전 47개 종목 중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는 태권도와 농구, 유도, 레슬링, 복싱, 축구, 배드민턴, 펜싱 등 25개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추첨은 각 종목별로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종목별 총감독과 지도자 등이 참관한다.

특히 배점이 높은 단체종목과 체급별 경기의 경우 대진 운이 성적을 좌우하는만큼 좋은 시드를 배정받길 기원하는 각 시도 체육인들의 응원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형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대진 추첨 결과에 따라 전술·전략이 달라진다"며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讀 讀 讀 독서하세요"

전북교육문화회관 9월 독서문화 행사 다채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오진)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독(讀)독(讀)독(讀) 책이 노크하네요'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인형극 공연, 전시,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우리의 것을 알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왕비, 궁궐 담장을 넘다' 김진섭 작가의 왕비의 시선으로 본 조선 역사 강연이 예정돼 있어 작가를 직접 만나고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옛이야기 '똥자루 굴러간다'의 김윤정 그림책 작가 1인극 공연과 강연이 준비돼 있어 유쾌한 옛이야기와 그림책으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창의성을 배울 수 있다.

그림자 인형극 '해님 달님'과 목각줄인형극 '황소가 된 돌쇠' 공연은 9월 28일 각각 10시 30분과 14시에 유치원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작가와의 만남, 인형극 공연, 전시,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우리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떡 만들기', '한복입고 전래놀이', '한복입고 책놀이'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9월 1일부터 학생과 지역주민이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 행사들이 운영된다.

책 선물 사연 보내기 '도서관은 사랑을 싣고', 독서보드게임 '도서관 행운 찾기', '도서관 삼행시 짓기', '도서관&독서 퀴즈', '도서관 연체자 구제', '넉 점 반 그림책 원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오진 관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도서관이 독서 문화의 장이 되어 지역사회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 독서의 달 행사 및 공연에 대한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 방법은 전북교육문화회관 누리집(lib.jbe.go.kr/je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서교육과(☎270-164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초 · 중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8월 7일에 실시된 2019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초졸 92명이 응시해 74명, 중졸은 170명이 응시해 117명, 고졸은 714명이 응시해 46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각각 초졸 80.43%, 중졸 68.82%, 고졸 64.85%를 보였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76세로 초졸 및 중졸 합격자 각각 1명이다.

합격증서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우편수령을 신청한 응시자는 집에서 우편으로 합격증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검정고시 성적조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성적확인에서 9월 26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응시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